

## 1. 참가 활동 내용(사진 포함 가능)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2018 말레이시아 문화체험은 6월 23일부터 27일까지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1일차(23일)에는 거의 이동 시간이 반이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다같이 만나 말레이시아 항공을 타고 6시간 30분을 날아가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시차는 1시간이 차이가 났다. 우리는 2시간 30분을 차를 타고 말라카로 이동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먹는 현지식은 나쁘지 않았다. 게살수프, 피쉬프라이, 닭찜, 계란부침 등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향신료가 강하지 않고, 가이드님이 말했듯이 더운 나라다 보니 음식이 대체적으로 짜고 기름기가 많았다. 저녁을 먹고 숙소인 라마다 플라자 호텔로 왔다. 오면서 버스가 길을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골목길로 갔는데 도시 속의 골목골목을 구경하면서 가정집, 현지 식료품점, 식당 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게 신기했다. 말레이시아에는 한국처럼 2~3명이 아닌 5명정도의 대가족이 산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더운 날씨에 밖에 나와서 다같이 노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도착하고 우리는 다같이 세븐일레븐에서 타이거 맥주(한국맥주와 비슷했다)와 말레이시아 과자들을 잔뜩사서 한방에 모여 월드컵을 봤다. 서로 맥주를 마시면서 답답한 경기를 응원하고 욕도 하면서 더 친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둘째 날은 말라카 투어를 했다. 말레이시아는 1957년에 독립을 했다. 말라카 또한 그러한데, 예전 15세기 세계적인 항구도시였다고 한다. 하지만 포르투갈에게 100년이 넘도록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네덜란드가 200년 넘게, 그다음에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오랫동안 주권을 잃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흔적들이 말라카 도시와 문화 자체에 남아 있었고 다양한 문화와 색채를 간직해서 2008년에 구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식 사원인 **첩훈텡 사원**으로 갔다. 첩훈텡 사원은 전형적인 중국(명 때) 사원으로 중국인들이 말레이 반도에 정착할 때 지어진 사원이라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국가지만 그만큼 불교도 많다고 한다. 사원 안에 향냄새가 유독 심해서 머리가 지끈거려서 나는 오래 있지는 못했다. 그만큼 여기서는 향을 많이 피우는데, 첩훈텡 사원은 관음보살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수호신으로 받드는 조상을 모신다고 한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러 이름들의 패가 올려져 있고 향들이 많이 꽂혀있었다. 지붕 위의 장식들이 다 우리같은 자기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정말 다 너무 정교하고 화려했고 길었던 식민지배 속에서도 잘 보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다음은 **네덜란드 광장과 존커스트리트**로 이동했다. 존커스트리트는 밤이면 북적북적한 야시장으로 변한다고 했다. 우리는 낮에 방문한 거라서 조금 아쉬웠다. 일단 내가 제일 기대했던 말레이시아 음식 10가지가 있었다. 밀크티, 코코넛, 두리안, 스타푸르츠, 망고, 꼬치, 블랙페퍼, 닭날개구이, 나시고랭, 카야잼. 그 중 밀크티를 사먹게 되었다. 너무너무 맛있었다. 공차와는 다르게 뭔가 깊으면서도 가볍고 달달하면서 멍멍한 그 맛이 딱 내맘에 들었다. 역시 밀크티는 어중간한데 맛있는 그 맛이 제맛이다. 그런데 이 날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건기만해도 짜증지수가 폭발했다. h&m에서 몸을 좀 식히는데 프랑스에서도 옷가격이 비슷했듯이 여기서도 동남아시아라고 세계적인 브랜드의 가격대가 싼 것은 아니었다. 바로 네덜란드 광장으로 이동했다. 분홍색의 네덜란드 식 건물과 빅토리아 여왕의 분수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관광객이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었고 우리도 인생샷을 건졌다. 네덜란드의 오랜 지배를 받아 16세기에 지어진 중세 네덜란드 양식의 뾰족한 첨탑교회도 큰 볼거리였다. 다음에는 **세인트 폴 대성당**을 갔다. 말라카 시내에서 가장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 말라카 시내의 모습을 한눈에 담고 서로 인생샷도 건졌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설명을 들었다. 14세기 포르투갈인들의 예배 장소로 지어졌지만 네덜란드와 영국군의 가톨릭박해로 인해서 현재는 벽 정도만 남아있고 네덜란드 귀족들의 묘지로 사용되어서 내부에 묘비도 많았다. 복잡한 종교이야기를 듣고나서는 네덜란드 종교개혁에 대해서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교회 앞에는 동아시아에 가톨릭을 전파한 프란시스 사비에르 신부님의 동상이 있었다. 한쪽 손이 잘린 이야기는 3가지가 있는데 다 신빙성은 없다고 하셨다. 그 후에 **말라카 강**에서 크루즈투어를 했다. 찬란한 무역왕국이었던 말라카답게 강을 따라 다양한 건물들이 즐비해 있었고 말레이시아를 표현하는 벽화도 화려했다. 밤이 되면 야경이 이쁘다고 들었다. 강 속에서는 팔길이만한 도마뱀이 지나다녀서 처음엔 악어아니냐면서 다들 놀랐다. 강을 따라서 음식점과 시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중간한 시간대라서 많이 열지는 않았었다.

이제 대항해시대를 빛내던 말라카를 뒤로하고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했다. 트윈타워는 세계의 마천루 중 하나이며 한쪽은 삼성건설이 건설했다. 일본과의 완공대결에서 승리한 삼성이야기를 뒤로 하고 자유시간에 쇼핑몰을 돌아다녔다. 지하식품매장인 Cold storage에서 말레이시아 필수기념품인 알리커피, 망고젤리, 카야잼, 올드타운밀크티, 두리안초콜릿, 망고초콜릿, 스타푸르츠를 샀다. 통갓알리커피는 사포닌성분이 식품원료법에 위배되어 한국에 수입이 안되는 커피인데 너무 맛있는 믹스커피였다. 카야잼은 코코넛 밀크와 계란, 판단잎으로 만들어 고소하고 달달한 잼인데 원래도 유명해서 알고 있었지만 조식뷔페에서 맛보고 반해버렸다. 이 카야잼 때문에 4일동안 병으로 된 카야잼 파는 곳만 찾아 다녔던 것 같다. 관광객 때문에 카야잼이 씨가 말랐는지 결국 공항에서 찾아냈다. 정말 꼭 사야되는 필수아이템이다. 그 다음 우리는 **페트로나스(KLCC) 전망대**로 올라갔다. 높은 건물이 많이 없어서 기대를 안했는데 일몰에 맞춰서 가서 그런지 환상적인 석양과 야경을 볼 수 있었다.



셋째날은 관광보다는 학교프로그램 중심의 문화체험이었다.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UKM)**에 들러 말레이시아의 전반적인 정치현황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나집 전총리의 부정부패가 심각했었고 최근에는 정권교체가 있었다고 들었다. 국민들의 노력이 얼마나 컸는지도 들으면서 한국과 비교하며 듣게 되었다. 아주대학교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ODA 중에는 정치인프라 ODA도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나는 UN과 같은 국제기구나 선진국들의 개입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문했다. 물론 있었지만 국가의 주권을 중시했고 심한 부정부패가 없어지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들었다. 지루하지 않게 퀴즈도 내주시고 영어도 알아듣게 너무 잘해주셔서 기억에 남는 강연이었다. 중간에 화장실을 가다가 학교 안을 슬쩍 살펴봤는데 그 건물만 그런지 몰라도 교실이 낙후된 느낌이었다. 밥을 먹고 캠퍼스 투어를 하면서 든 생각은 캠퍼스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것이다. 자동차나 자전거 없이는 절대로 걸어서 못다닐 크기였다. 내가 대학생이고 학교홍보대사를 하고있어서 그런지 눈여겨 보게되었는데 한국처럼 여러개의 단과대로 이루어져있고 2만명정도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가능한데, 말레이 학생들에게 유리한 쿼터제를 둔다고 한다.

캠퍼스 투어를 마치고 **말레이시아 대사관**으로 이동했다. 도경환 공관장님께서 한 말씀 중에 '여행은 단순히 여행 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만 특별한 무엇을 할 수 있을가 생각해 보는 것. 그러므로 여행을 하며 관찰로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에 필요한게 없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 는 말이 와닿았다. 교환학생과 어학연수를 하면서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 나름대로 여행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했지만 더 깊이 파고들어 그 나라에 나를 대입시켜본적은 없었던 것 같았다. 앞으로도 해외여행 뿐만 아니라 모든 경험에서 한 보 더 나아가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전반적인 말레이시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땅은 한국의 3배인데 인구는 반으로 인구밀도가 낮으며 중국, 인도 등 다인종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슬람교(힌두교)와 불교가 주종교이다. 천연자원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가스, 팜오일(전세계 팜오일 2위),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1980년대



부터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제조업을 육성했다. 또한 부동산을 위한 레지던스 형태의 건물들이 중국영향으로 많아졌고 부동산 자본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공실이 많게 되어 지금은 거품이 꺼진 상황이라고 한다. 인종간의 부의 편중문제 시정을 위해서 국립대학교 입학처럼 말레이계 쿼터제가 많이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960년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한다. 2000년대 이후부터 한국기업이 투자, 진출하기 시작했고 제조업보다는 금융, 서비스금융투자 형태였다고 한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아세안 및 다자현안 관련 협력을 추진하는 일을 한다. 말레이시아 진출기업을 보호, 지원하고 건설 플랜트 수주지원, 에너지 협력까지 도와준다. 또한 한국학교를 설립하고 한국어 보급, 문화 공공외교사업을 시행한다. 대사님께서 '이미 케이팝, 케이드라마는 너무 유명해서 한국 전통문화나 영화를 중점적으로 기획 중'이라고 하셨다. 실제로 길거리에 한국노래가 많이 흘러나오고 가이드님께서 말레이시아 아줌마들이 밤만 되면 다 들어가는데, 한국드라마를 보기 위해서라고 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영사서비스업(재외국민 보호활동, 동포영사서비스)까지 담당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대사관업무를 전반적으로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음은 코트라로 이동했다. 코트라에서는 해외취업관련 세미나(2018 상반기 해외취업 멘토링 데이)를 들었다. 글로벌 일자리 대전, 취업박람회, 월드잡플러스, 해취투게더, K-MOVE와 같은 해외취업인프라를 알 수 있었고 오라클, BASF에 취업한 멘토의 경험과 노하우를 들으면서 나도 돌아 가서 해외취업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직무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일에 가장 맞는 나라를 찾아서 구직해야 되겠다.



이 후에는 자유시간이었는데, 우리는 부킷빈탕 잘란알로야시장으로 갔다. 숙소에서 걸어서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 말레이시아는 스콜성 기후로, 자잘하거나 굵은 비가 잠깐 내렸다가 그치는 걸 반복한다. 가는 길에 비가 많이 내려 걱정했는데 도착했을 때는 그쳐서 다행이었다. 일단 우리는 먼저 마사지샵에 들러 다같이 마사지를 받았다. 전신 1시간에 65링깃으로 한국보다 훨씬 싼 가격이었다. 웃긴 에피소드로 우리는 10명에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던 탓인지 나만 발은 씻지 않은 채로 마사지를 했다. 내가 안씻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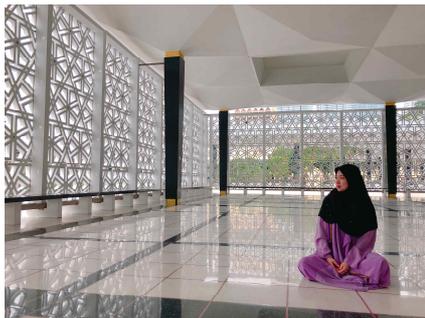
여러번 말했지만 괜찮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친구가 동료에게 말했더니 갑자기 다들 엄청 웃었다. 나는 괜찮았지만 마사지사분께 미안했다. 그래도 1시간동안 너무 시원하게 마사지를 받고 나와서 애증의 카야잼을 찾아다녀 몇 개 구입했다.

야시장에서 모든 버킷리스트를 완료했는데 일단 블랙페퍼, 파인애플닭튀김, 칠리새우, 나시고랭, 사태, 닭날개구이를 시켜 단돈 50링깃으로 배불리 먹었다. 블랙페퍼는 기대했던 것 만큼 맛있진 않았는데 닭날개구이가 너무 환상적이었다. 길거리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코코넛을 잘라서 먹어봤는데 내 5링깃은 그렇게 날아갔다. 코코넛 안에 어떻게 이렇게 물이 많을까 신기했던 것도 잠시, 생각보다 너무 밍밍하고 한국편의점 ZICO보다 맛없었다. 그런데 아까워서 계속 먹다보니 기분탓인지 뭔가 괜찮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과일왕, 대망의 두리안에 도전했다. 혹시나 몰라서 입가심용으로 망고도 함께 샀다. 열자마자 바나나와 버터를 적절하지 않게 섞은 이상한 구린내가 진동하면서 역겨웠지만 입에 넣으니까 또 맛은 심하진 않았다. 5초 후에 숨을 내쉬자마자 냄새가 맛으로 느껴져서 바로 망고를 흡입했다. 그렇게 내 6링깃도 날아갔다. 시장에서 망고스틴도 사와서 숙소에서 먹어봤는데 왜 과일의 여왕인지 모를만큼 나한테는 맛이 없었다. 아무튼 말레이시아는 치안이 좋은 나라 중에 하나여서 밤에 혼자 골목만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안전하다고 한다. 야시장만큼 동남아시아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레이시아의 문화를 느끼며 새로운 음식도 맛보고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

마지막 날은 문화체험 후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었다. 먼저 **말레이시아 왕궁(이스타나 네가라)**로 갔다. 말레이시아는 아직까지 입헌군주국으로 왕이 존재한다. 국왕이 실제로 살고 있는 왕궁으로, 깃발이 올라가고 내려가 있느냐에 따라 왕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9명의 왕이 임기가 되면 거처를 옮겨서 지내는 금빛 돔 모양의 왕궁은 겉으로만 봤지만 화려하고 웅장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이슬람 **국립 모스크인 마시드 느가르**로 갔다. 8,000명의 무슬림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로 고요하지만 근엄한 분위기였다. 관광객들은 노출있는 옷으로 입장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히잡을 쓰고 들어갔는데 특별한 경험이었다. 이슬람 문화를 개방적으로 체험하면서 이슬람과의 괴리감이 점차 사라졌던 것 같다. 국제학부 수업인 '관광과 문화'를 들으면서 하지(Haji)를 배웠었는데 그때는 와닿지 않았던 이슬람이라는 개념이 말레이시아에서 계속해서 접하게 되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거부감이 덜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동하

여 정말 기억에 남았던 **'켄팅 하일랜드'**로 갔다! 말레이시아에서 유일하게 카지노를 즐길 수 있는 곳! 해발 2,000m의 '구름 위의 라스베가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고 올라 도착한 곳은 큰 복합쇼핑몰로 관광객과 현지인으로 붐볐다. 화려한 디스플레이는 시선을 사로잡았고 카지노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지 부유한 신축 쇼핑물의 느낌이 물씬 들었다. 이슬람 종교 때문에 카지노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매우 높은 위치에 있어서 허가가 났다. 사실 예전에 모나코 카지노를 가본 적이 있어서 완전히 생소하지는 않았다. 신사의 게임 카지노는 남자는 옷깃이 있는 옷과 발등이 덮인 신발을 신어야 했다. 여자도 슬리퍼는 보통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안에는 슬롯머신이 가장 많고 바카라, 블랙잭, 12지신 등 다양한 게임이 있었다. 생각보다 스크린으로 진행되는 현대식 카지노라서 놀랐었다. 구경을 하는 와중에 중국인들이 잭팟이 터지는 장면도 봤다. 중국부자들의 배팅금액은 상상을 초월해서 신기했다. 안에서는 흡연이 가능했기때문에 목이 칼칼해서 우리는 나와서 다시 쇼핑몰을 구경했다.

마지막 일정은 **바투동굴**이었다. 바투동굴은 힌두교의 성지로서 다리를 가리고 올라가야한다. 무루간이



이 바투 동굴에 들어와 일 년에 한 번 어머니를 만나주기로 한 날이 타이푸삼이다. 무루간이 힌두교 의식 중 하나인 타이푸삼 축제의 주인공이다. 이 곳의 272개의 계단은 인간이 일생 동안 지을 수 있는 죄의 수이고 세 구역으로 나뉜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한다. 무루간은 '고행을 통해 자아를 깨닫게 하라'라는 가르침을 전파하였고 힌두교 신자들은 맨발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참회와 수련을 한다고 한다. 힌두교 신자들이 타이푸삼 때 고행으로 바투 동굴을 행진한다고 하는데 종교의 특수한 문화는 독특하고 끝이 없는 것 같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이듯이 다양한 종교 또한 공존하는 것을 느꼈다. 거대한 무루간 동상과 말썽꾸러기 원숭이들도 하나의 볼거리였다. 동굴 안쪽의 거대한 중

앙동굴 홀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은 신비하고 먹먹했다. 우리가 갔던 당시는 계단과 앞쪽이 공사 중이라서 화려함이 덜 해서 조금 아쉬웠다.

바투동굴을 마지막으로 3박4일의 길 것만 같았던 여행이 끝이 났다. 다 같이 한식을 먹고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이동하여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갔다. 다들 피곤했던 폭 자는 듯 했고 피곤함은 뒤로 하고 여행이 끝이 났다는 아쉬움이 컸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돌아오는 길에 보이는 야경은 아름다우면서 조금 슬펐다.

## 2. 참여 소감 및 향후 계획

전체적으로 너무나 만족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유럽국가와 동아시아 국가는 많이 가봤지만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는 처음 가보는 나라였다. 서양 국가들과 다른 색다른 문화와 음식, 종교를 비롯한 전체 분위기가 나에겐 크게 다가왔고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개도국일 것 같다는 막연한 이미지와 다르게 말레이시아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국가였다. 대사관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리며 말레이시아에는 첨단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동안 심각했던 부정부패가 국가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나, 이제는 청산되고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가의 발전가능성은 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여행에서 말레이시아에 정착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크게 느꼈다. 길거리에는 케이팝이 울려 퍼지고 식료품점 안에는 이마트마크와 한국제품들이 외국음식 코너가 아닌 메인 가판대에 있었다. 이렇듯 한국의 시장영향력을 확인했고 우리나라 불닭볶음면이 할랄 마크를 인증 받고 불티나게 팔렸듯이 그 나라의 문화에 맞추어 사업을 구상하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전형적인 국가이다. 또한 영어권 국가이고(도시를 벗어난 현지인들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슬람권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하고, 동남아 주변국에 비해 정치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제조업이 탄탄하여서 투자와 수출을 비롯하여 항공, 관광 서비스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시장의 전망이 밝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국제학부 수업 중에 일부분이지만 관광과 문화나 국제무역론, 동아시아입문,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등을 들으면서 배웠던 개념이 이어지는 부분이 많았다. 이론적으로만 배우면서 막연한 개념만 가지고 있었지만 잠시나마 몸소 체험하면서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불어불문학과여서 프랑스와 유럽, 아프리카 권에만 머무르던 사고를 더 넓혀 유럽, 한국,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세계를 바라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코트라 해외취업세미나를 통해 동남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해외취업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보고 싶다.

### 3. 프로그램 주관 기관 및 대학에 바라는 점

국제학부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처음 참여해봤지만 꼭 한번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만족했다. 현지 가이드 분은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도 항상 열정적이었고 도와주려고 애써주셨고 열심히 안내해주셨다. 좀 더 열심히 듣지 못해서 아쉬울 뿐이다. 학교에서도 최대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일정을 맞추려고 애썼었다. 다만 총 12시간이 비행시간인만큼 전체 일정은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알차게 다니지 못한 느낌이었다. 조금 더 오래 머무르며 돌아보고 그 느낌을 내 것으로 만들 시간도 없이 이동한 적이 많았고 일정상 생략된 부분도 몇 개 있었다. 일정 중에 밤에라도 학생들끼리 다닐 수 있는 자유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아쉬웠다. 가이드분을 따라 진행되는 일정도 좋지만 우리끼리 구석구석 다니며 느끼는 색다른 문화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예산 상 문제가 있겠지만 다음에는 하루정도 늘려서 조금 더 느긋하게 생략되는 목적지 없이 생각할 시간이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빠듯한 일정에 피곤해서 가이드분의 말에 집중을 잘 못할 때가 많았고 조리있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지만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내용, 혹은 나중에도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팜플렛이나 계획서에 전반적인 정보를 적어서 다같이 미리 훑는 공부라도 하고 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지만 패키지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서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았다. 나조차도 그랬기 때문에 귀찮거나 힘들어도 사전 학습을 진행하면 더 보람있고 머리에 남는 것이 많은 여행이 되어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 4. 다른 학우 및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국제학부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연구를 위해 떠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문화체험프로그램이기에 학교해외프로그램에 부담감이 있는 저학년들은 저학년대로 마음이 무거운 고학년은 고학년대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친구에게 추천을 받은 경우인데, 바로 지원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첫 째로 후일 동남아시아입문 과목을 듣고 싶어서 미리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일본,중국,태국 같은 나라들은 여행하기가 까다롭지 않지만 말레이시아라는 국가는

따로 여행을 잘 가지 않을뿐더러 가더라도 관광위주의 발달이 뛰어나지 않아 혼자 여행하기에는 부담되는 목적지였기 때문이다. 또 학교에서 함께 방문하게 되면 안전, 숙박, 이동, 정보수집이 수월하기도 하고 다른 학과 학생들과 만나서 생각도 나눌 수 있고 심지어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다. 일본같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유명관광지와 달리 우리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동남아시아를 경험하면서 다소 생소한 국가들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공부라고 생각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아세안 국가들을 볼 수 있듯이 앞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해야할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며 그런 기회에 더 관심을 빨리 가지고 그만큼 빨리 눈을 뜰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아주대학우분들이나 후배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잊지말고 참여해서 다양한 문화와 사회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미리 국제통상학과 과목을 들어 놓거나 공부를 해놓는다면 가서 더 깊이 생각하고 한국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한다.